

고대 메소포타미아 종교 복식에 관한 연구*

임 상 임 · 류 보 영*

원광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 원광대학교 의상학과 박사과정*

A Study on the Religious Costume in Ancient Mesopotamia

Sang-Im Im · Bo-Young Ryu*

Professor, Dept. of Clothing, Wonkwang University

Dept. of Clothing, Wonkwang University*

(2000. 9. 26 투고)

ABSTRACT

This essay examines the costumes for gods and priests in ancient Mesopotamia as they are depicted in various documents and artefacts of the period, and it is part of an ongoing project that studies the process in which the religious costumes, the means of religious communication, of ancient Mesopotamia had evolved.

The study shows that the religious costumes in ancient Mesopotamia have following characteristics. 1. The costumes for gods are the same as those for men, including wrap-around skirts, tiered skirts, shawls, and tunics. However, there are some differences: costumes for gods include such distinguishing features as aprons and long tassels. 2. Both wear stylized headpieces that indicate their divinity and have long hair and long beard. 3. As for shoes, the Sumerian and Babilonian gods go barefoot, but the militant Assyrian gods wear sandals. 4. Sumerian and Babilonian figures do not have much adornment, but the Assyrian gods wear various ornaments including earrings and bracelets that emphasize their muscular physique. 5. Priests wear tiered skirts or wrap-around skirts but no top. They have shaved hair to indicate their role as purifiers, but some of them have long beards.

Key Words : mesopotamia, religious costume, sumerian, babilonian, assyrian, priests

I. 서론

문화 없는 민족이 없고 종교 없는 문화가 없다고

하듯이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종교는 문화의
얼이라 할 수 있으며, 한 민족 문화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그 민족의 종교 즉 종교의 의식구조를 이

* 이 논문은 1999학년도 원광대학교 교비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짐.

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¹⁾

종교는 경험, 사상, 의례, 집단 등의 여러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적인 문화 현상으로 하나의 일관된 문화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²⁾ 보이지 않는 신과의 관계 및 영원의 차원과 같은 추상적 개념들을 다루는 것으로 상징적 표현들을 많이 사용한다.³⁾

특히 종교 복식은 그 종교의 믿음 체계가 특정한 양식으로 구체화되고 상징화되어 많은 종교적 의미와 암시를 내재하고 있다.⁴⁾ 그러기에 종교 복식은 종교 의례에서 성직자의 위상을 높여줄 뿐 만 아니라 의례의 분위기를 엄숙하고 경건하게 만들어 주며, 시각적 혹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상징적 부호로써 의식 참여자들에게 성직자의 역할 및 지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여 상황을 규정하는데 도움을 주며 그 이상의 상호 작용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이렇듯 종교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가장 명확히 나타내고 있으며, 각각 고유의 상징적 의미에 의한 종교적 의사 전달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종교 복식에 대하여 그 형성 과정을 고찰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작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대 이집트 종교 복식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I)의 후속 연구로써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이 남긴 유물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종교 복식의 특징을 고찰하기 위하여 신과 성직자의 복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과 분석 내용은 선행 문헌 자료와 조각, 벽화, 건물의 부조, 원통형 인장 등의 그림 자료를 중심으로 신과 성직자 복식의 착장 형태, 즉 의복, 머리 모양 및 관모, 수염, 신발, 장신구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일반 복식과 종교 복식의 차이점을 표로서 정리하여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고대 메소포타미아는 수메르,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페르시아를 일컬으나, 페르시아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를 전달해 주는 매개자로서 그들의 종교는 기존의 메소포타미아 도시 국가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본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하였으며, 실물을 직접 연구 자료로 사용하지 않고 2차적인 그림 자료를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의복의 구조나 색채, 재질 등을 일반적인 근거 자료에 의존

하여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밝혀 둔다.

II. 고대 메소포타미아 종교

세계 최고(最古)의 문명인 오리엔트문명 중에서도 역사가 가장 오랜 메소포타미아 문명⁵⁾은 개방적인 환경 조건으로 인하여 북부 산악 지방이나 남부 사막의 유목 민족의 침입이 쉬웠으므로 그 정치사는 많은 민족의 흥망과 여러 국가들의 성쇠로 이어진 복잡한 것이었다. 이 지역의 문명 발전⁶⁾은 수메르 시대(B.C 3500~2000), 바빌로니아 시대(B.C 1894~1595), 아시리아 시대(B.C 911~612)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이라크 가장 남부에 해당하는 수메르 땅과 거기에 이어지는 악카드라 불리는 지방을 통틀어 바빌로니아라 부르며 바빌로니아 서북으로 이어지는 지역을 후에 아시리아로 부르게 된다.

고대 메소포타미아는 오늘날 이라크 남쪽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있는 기름지고 평평한 지역이었으나, 이 두 강은 나일강과는 달리 불규칙적으로 범람을 하여 때로는 참혹한 재앙을 가져다 주기도 하였으며⁷⁾ 더욱이 사방에서 침입하는 외적의 침입과 공격으로부터 자연 방벽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항상 변동이 일어났고 모든 것이 일시적이었으며 오랫동안 안정된 채 남아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삶의 기쁨은 순간적이었고 눈 깜짝할 사이에 다른 것이 남아 채어갈 정도였다.⁸⁾

이러한 메소포타미아의 지리적 환경은 정치사와 문화사는 물론 종교사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오랫동안 종교는 정치 문화적인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복합적인 형태와 결부되어 매우 특징적인 고대 메소포타미아 종교를 탄생시켰다.

메소포타미아 종교는 이웃하는 이집트와는 아주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집트인이 현세를 안정되고 행복한 것으로 느끼고 그 현세를 영원히 연장하고 싶은 강한 회귀에서 두터운 내세(來世) 신앙과 세계에서 드문 호화로운 장례 습관을 가지고⁹⁾ 유일신교에 힘을 쏟은 반면에 메소포타미아인들은 끊임없이 닦치는 불행한 기후, 풍토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현실의 삶에 다분히 비판적이고 염세주의적

이었으며 지극히 우수와 악령의 공포에 가득찬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다.¹⁰⁾ 그리하여 메소포타미아인들은 무수한 악령으로부터 그들을 지키는 힘을 가진 신(神)들에 대한 신앙은 절대적이었으며, 그들을 둘러싼 모든 것에서 신들의 모습을 보고 이것을 신앙하는 다신교로 발전시켰다.

메소포타미아 종교의 가장 오래된 형태는 도시의 중심에 거대한 벽돌탑으로 지구라트(Ziggurat)¹¹⁾를 만들어 그 정상에 신전을 두고 도시의 주민들을 모두 책임지고 보호하는 도시의 수호신을 숭배하는 형식이다.¹²⁾ 이 종교적인 형태는 일찍이 문자 문명을 싹트게 한 수메르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개방적인 환경 조건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이주와 침입으로 새로 이주해온 민족들은 수메르 종교의 핵심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새로운 문명과 결합시켜 보다 발전된 형태를 이루었다.

최초 통일 왕국인 수메르는 제정일치의 국가로서 도시국가의 우두머리가 최고 제사장이자 군사령관이었으며 동시에 관개체계의 감독관으로서 권력을 확대하여 왕이 되기도 하였으며,¹³⁾ 신전중심사회에서의 도시는 신전의 영유(領有)이고 도시의 성원은 신전 소속민(所屬民)으로서 도시의 정치와 경제의 전권을 신전에서 쥐고 있었다.¹⁴⁾ 또한 수메르인들은 세상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곱 큰 신들¹⁵⁾과 개인 수호신을 섬겼으나 그 중에서도 농업에 관계된 엘릴(Ellil) 신을 가장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최고의 신으로 받들었다. 그러나 수메르인들은 신들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 열정과 같은 속성을 지닌 인간으로 형상화된 존재라는 신인동형론(神人同形論)의 신관을 가졌다. 따라서 수메르인들의 종교는 영원한 복락의 내세에 희망을 주지 않는 전적으로 현세를 위한 종교였기 때문에 시신(屍身)은 미라는 물론 무덤도 만들지 않고 가옥의 마루 아래 매장하였으며 공공묘지도 존재하지 않았다.¹⁶⁾

바빌로니아는 바빌론을 토대로 일어난 국가로서, 수메르인과 다른 계통의 민족인 셈족이었지만 수메르인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그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종교도 바빌론이 메소포타미아의 중심 세력이 되면서 바빌론의 수호신 마르둑(Marduk)이 엘릴 대신 최고신의 자리를 차지

하며 일곱 큰 신의 대열에 들어오는 피상적인 변화만을 겪었을 뿐 수메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시리아는 아슈르(Ashur) 신을 수호신으로 받들고 있는 아슈르시를 근거로 하는 국가로서, 오리엔트를 최초로 통일한 상무(尙武)의 민족이었다. 아시리아 종교도 제정일치의 형태이며, 아시리아의 국토와 백성은 아슈르 신의 소유로서, 만약 신종(臣從)의 맹세를 배반한 이민족은 아슈르 신을 모독한 죄로 인하여 잔악하고 철저한 공략을 당하였다. 이는 반란자에 대한 징벌을 철저히 행하지 않으면 아시리아 전토(全土)에 질병, 흉수, 기근등의 신벌(神罰)이 내려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¹⁷⁾ 이처럼 현실을 중요시하는 바빌로니아의 종교적 성향이 부분적으로 전사들의 국가였던 아시리아로 이어져 내려와 전승되어졌다.

그러나 칼데아인(Chaldeans)의 지배권 장악과 아시리아의 붕괴로 인하여 메소포타미아 종교는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점성(占星)종교로 발전되었다.¹⁸⁾ 칼데아인 역시 내세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현세적 보상과 이익 즉 장수, 자손의 번성, 물질적 행복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신에게 복종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칼데아 제국은 불과 100년도 존속하지 못하고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에 멸망¹⁹⁾되면서, 페르시아는 전혀 새로운 문화를 전달해주는 매개자로서 기존의 메소포타미아의 종교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을 띤 종교사를 형성하였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회에서는 가장 국가적인 의례로서 '정결례'와 '성결례' 의식이 있었다. '정결례' 의식은 일반적으로 구마사제가 거룩한 주문을 읽음으로써 마귀를 쫓아버리는 것이며, '성결례'는 도시의 통치자가 여사제와 신년 축제일에 혼례를 거행함으로써 그 해의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것이다. 이때 구마사제에는 대사제와 도시의 통치자가 되었다. 그러나 차츰 사회체제가 발전해가면서 전문적인 성직자가 생겼고, 아버지의 성직을 아들이 대대로 계승하였다. 성직자들은 사담무(Satammu)라고 불리었는데,²⁰⁾ 그들은 예배자들을 위하여 제의를 행하고 주문을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환자의 몸 속에 있는 악령을 쫓기도 하고, 사원에 학교를 경영하여 읽기, 쓰기, 셈본을 가

르치며 시간의 징후를 읽고 미래를 예견하는 점을 치는 등²¹⁾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회에서 지배계급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처럼 메소포타미아 종교는 고대 이집트의 종교와는 달리 내세에 대한 희망을 만들지 않고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임으로서 종교행위도 현실의 삶을 위하여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독특한 메소포타미아의 종교 철학은 복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III.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종교 복식 고찰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이집트와는 달리 여러면에서 이세적(理世的)인 면을 추구하여 신(神)들도 권력(權力)이나 천성(天性)에 있어서 인격화된 듯 싶다.²²⁾ 따라서 종교복식도 메소포타미아인들에게서는 이집트인에게서 무수히 찾아 볼 수 있는 종교적 상징이 흔하지 않으며²³⁾ 이들이 의복을 일종의 독성물(瀆聖物)로 본 듯 왕족외에는 나신(裸身)으로 매장하여 유물이 극히 드물어 그들의 종교 복식에 관한 자료는 벽화나 인장, 조각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²⁴⁾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벽화나 인장, 조각품을 중심으로 종교적인 제복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과 성직자의 복식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으며 그 특징은 어떠한지 살펴본다.

1. 신(神)의 복식

1) 남자 신(男子 神)의 복식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들은 인간처럼 살고, 사랑하듯이 그들이 착용한 복식도 인간의 복식과 큰 차이를 두지 않는다. 즉 인간화된 신들의 복식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사회에서 착용된 복장 형태로 대다수 표현되고 있다.

<그림 1>은 초기 수메르 시대(B.C. 2800)의 아부(Abu) 신상(神像)으로서, 아부 신은 상의는 벗고 하의는 수메르의 기본 복식인 둘러 입는 랩 어라운드 스커트만을 착용하였다. 초기 수메르 시대의 보통의 상은 둘러 입는 스커트였는데 왼쪽 뒤에서 겹쳐서 3~5개 정도의 띠로 여며²⁵⁾ 입었기 때문에 앞에서

보아서는 롱스커트처럼 보인다. 스커트는 폭보다는 길이에 변화를 준 것으로 스커트 길이가 무릎 아래로 내려와 비교적 길며 긴 프린지(fringe)로 스커트 끝처리를 하였다.²⁶⁾ 허리에는 가늘게 두른 둥근 거들(girdle)을 묶어 조였으며,²⁷⁾ 그림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묶고 남은 여분의 천은 허리 뒤에서 마치 동물 꼬리처럼 늘어뜨렸다.²⁸⁾ 머리 형태는 긴 머리를 가운데 가리마를 타서²⁹⁾ 머리 끝을 어깨 위로 늘어뜨려 앞으로 가져왔다. 또한 머리와 함께 턱수염을 길게 길러서 각(角)이 지게³⁰⁾ 깎아 가슴에 드리웠으며 콧수염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신은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고 발은 맨발이며, 신의 속성으로서 특징을 굉장히 큰 눈에 표시하고 있다.³¹⁾



<그림 1> 아부 神像, Tel Asmar 바그다드, 이라크 박물관
-A History of in the West(Carl Kohler), P.37-

<그림 2a>는 태양신 샤마시(Shamash)를 나타내는 부조로서 샤마시 신 주변의 어깨에서는 빛이 솟아오르고, 그는 심판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상징하는 톱을 휘두르고 있는 모습이다.³²⁾ 샤마시 신은 상의는 입지 않고, 긴 술 다발들이 허리에서 아래로 늘어진 홀라(hula)-스커트형으로 된 랩 어라운드(wrap around) 모피 스커트만 착용을 하였으며 스커트는 여미지 않고 열려 있다. 머리에는 높이 솟은 뿔이 있는 원추형 관모에 신의 속성을 나타내는 세쌍의 물소 뿔을 장식하여 썼으며 길고 무성한 턱수염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역시 맨발이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관모에 장식된 물소 뿔을 들 수 있는데

물소 뿔은 신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왕들이 그들의 권위를 신에게서 받았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물소 뿔을 관모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림 2a> 태양 神 샤마시(左로부터 두 번째)
-메소포타미아 신화(헨리엔타 맥컬) P.54-

<그림 2b>는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 새겨진 기둥의 상부 부조로서 샤마시 신과 함무라비 왕의 복식을 한 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샤마시 신은 수메르에서는 우투(Utu)신으로 불렸으며 하늘과 땅의 심판관으로 함무라비 법전을 준 신이기도 하다. 샤마시 신은 층층이 술이 늘어진 맨틀(mantle)을 걸치고 있다. 머리 형태는 풍성한 머리를 어깨 위에서 모아 놓았으며 높고 정교하게 말아 돌린 터번(turban)을 착용하였고, 길게 기른 수염은 각이 지게 깎아서 가슴에 길게 드리운 것을 볼 수 있다. 장신구는 두 줄의 굵은 목걸이와 팔찌를 착용하였으



<그림 2b> 함무라비왕과 태양 神 샤마시(右)
-비주얼大世界の 歴史 1권 인류의 탄생 ·
고대 오리엔트, P.236-

며, 신발은 신지 않고 맨발이다. 샤마시 신의 어깨에서는 <그림 2a>처럼 빛이 솟아오르고 있으나 칼 대신 지팡이를 들어 정의의 심판관임³³⁾을 표현하고 있다. 반면에 함무라비 왕의 복식은 한 장의 사각형의 천으로 이루어진 술을 착용하였는데 한쪽 끝은 왼쪽 어깨의 앞쪽으로 내려진 후 오른팔 아래를 지나면서 신체를 감싸고, 왼쪽 어깨 위를 지나 다시 오른팔 아래로 오는 형식이다. 이것은 그리스 히마티온(himation)이나 로마의 토가(toga)와 다를 바 없는 형태³⁴⁾의 드레퍼리 의상으로서 샤마시 신의 맨틀과는 다르다. 머리에는 무늬가 없으면서 위로 올라간 차양을 가진 낮고 둥글며 편안한 왕관³⁵⁾을 착용하였으며, 긴 수염을 가지고 있다. 장신구는 목걸이와 팔찌를 착용하였고 맨발이다. 신과 왕의 복식은 바빌로니아 시대의 복식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신의 복식이 왕의 것보다 좀 더 화려함으로써 왕보다는 신의 권위가 더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은 전염병과 전쟁의 신이며 지하세계의 신인 네르갈(Nergal)이다. 네르갈은 그의 역할을 상징하는 특유의 사자 머리를 한 갈고리 달린 양날 철퇴를 들고 있으며, 의복은 <그림 2a>의 샤마시 신과 같이 홀라-스커트 형태의 랩 어라운드 스커트를 허리에 둘러 입고, 허리에는 가늘고 둥근 거들을 둘러 조여서 한쪽 다리가 드러나도록 착용하였다. 머리에는 물소 뿔이 간단하게 장식된 관모를 쓰고, 유



<그림 3> 전염병의 神 네르갈-메소포타미아 신화(헨리엔타 맥컬), P.54-

난히 긴 수염을 허리까지 길게 드리움으로서 지하 세계의 막강하고 두려운 존재를 표시하고 있으며, 양손에 팔찌를 착용하고, 신발은 신지 않았다.

<그림 4a>는 원통형 인장의 날인으로서 좌로부터 닌우르타(Ninurta) 신, 이난나(Inanna) 여신, 샤마시 신, 엔키(Enki) 신, 시종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닌우르타 신은 수메르의 전쟁 신답게 손에는 활과 화살을 들고 있으며 등뒤로는 칼이 보이고 있다. 의복은 앞의 신들과 같이 홀라-스커트형의 랩 어라운드 스커트를 입고, 5쌍의 물소 뿔 장식이 있는 관모를 쓰고, 긴 머리를 어깨위로 내렸으며 각이 진 수염을 가슴에 길게 드리웠다. 샤마시 신은 좌로부터 세 번째로 산 사이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는 <그림 2a>와 같이 손에는 톱을 들고 어깨에서는 태양 빛이 발산되고 있으며 물소 뿔 관을 쓰고 있다. 이것을 보면 샤마시 신의 모습은 이미 상징화되어 고정된 것 같다. 샤마시 신의 옆에 있는 엔키 신은 수메르의 물의 신이며 지혜의 신으로서, 닌우르타 신과는 달리 모피가 여러 층으로 늘어져 있는 티어드(tiered)형 카우나케스(kaunakes)와 숄(shawl)을 두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수메르 시대에는 이미 재단과 재봉이 사용된 티어드 코스튬(tiered costume)이 존재했고 한 장의 숄로서 몸 전체를 둘러 입는 방법이 일반인들에게 사용되어졌으므로 여기에서도 스커트와 숄이 아니라 티어드 된 한 장의 양피 천을 착용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머리의 관모 역시 앞의 신들과 같은 물소 뿔³⁶⁾ 장식을 하고, 수염을 자연스럽게 길렀다. 또한 엔키 신 어깨주위로 물줄기가 흐르고 물고기가 다니는 것은 물의 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엔키 신 오른쪽에 있는 이는 엔키의

시종신이다. 그 역시 티어드 형 카우나케스를 착용하고 있으나, 신권을 나타내는 특별한 상징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신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두 얼굴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시종신의 특징인 것 같다. <그림 4a>의 모든 신들은 앞의 신들과 마찬가지로 신발을 신지 않고 있으며, 장신구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아시리아 시대의 또 다른 닌우르타 신의 모습<그림 4b>를 보면 그는 상징물인 활과 화살을 들고 있으나 의복은 일반적인 아시리아 복식 형태인 튜닉을 착용하고 그 위에 에이프런(apron)을 입고 있다. 튜닉은 길이가 무릎까지 오는 짧은 튜닉이나, 튜닉의 단에는 긴 술(tassel)이 달렸으며 허리에는 에이프런을 고정하기 위한 거들을 돌렸다. 에이프런은 신의 복식 중 중요한 특징으로서 층층이 술이 늘어진 티어드 코스튬 형태이다. 길이는 엉덩이에서 발목까지 오며, 이집트 에이프런과는 달리 신체의 뒷부분만을 가리우며 앞부분은 열려 있다. 특히, 에이프런에는 위 부분만을 제외하고 술과 프린지를 동시에 이중으로 사용하여 좀 더 화려하게 장식하였으나 프린지 안에 술이 숨어 있기 때문에 걸어서 보았을 때에는 프린지 만을 보게 된다.³⁷⁾ 또한 왼쪽 어깨 위에서부터 가슴을 가로질러 오른쪽 겨드랑이로 긴 프린지가 달린 발드릭(baldric)을 착용하여 높은 신분을 나타내고 있다.³⁸⁾ 아시리아에서는 술이나 튜닉에 붙은 술의 숫자, 폭, 배치 등으로 신분을 나타냈는데 신들의 의상에서는 대부분 많은 술들이 길게 달려 그들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머리에는 세로 홈이 파인 원통형 관을 쓰고 있다. 즉 <그림 4a>, <그림 4b>의 닌우르타 신은 끝없는 전쟁터인 메소포타미아의 용맹한 전사의 원형으로서 시대에 관계없이



<그림 4a> 닌우르타 神, 이난나 女神, 샤마시 神, 엔키 神, 시종(左로부터)

- 메소포타미아와 히브리 신화(조철수) P.53-



<그림 4b> 전쟁의 神 닌우르타

-메소포타미아 신화(헨리엔타 맥컬) P.150-

활과 화살, 칼등의 상징물로 전쟁 신으로서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의복은 그 시대에 착용되는 복장을 하고 있어 신의 의복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a>는 바빌로니아의 최고의 신 마르둑을 나타내는 원통형 인장의 날인이다. 마르둑 신이 바빌로니아의 최고신이었으나 인장의 제작 연대가 아시리아 시대(B.C. 854-819)로서, 그가 착용하고 있는 복식은 바빌로니아 복식이 아니라 아시리아 복식에 가깝다. 그의 의복은 정교하게 기하학적인 문양이 장식된 직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아시리아 시대의 직물 장식의 화려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마르둑 신은 발목 길이의 긴 튜닉 위에 넓은 거들로 고정시킨 술을 두르고 양어깨에서 가슴을 가로질러 허리까지 발드리를 착용하였다. 머리에는 무늬가 있고 금속 깃털 장식이 붙은 원통형 관을 착용하고 턱수염을 길게 길렀으며, 상징물로는 왕의 신분을 상징하는 지팡이와 커다란 링을 갖고 있다.



<그림 5a> 바빌로니아 최고神 마르둑-메소포타미아 신화(헤리엔타 맥컬), P.120-

그러나 또 다른 아시리아 시대(B.C. 860-855)의 마르둑 신의 모습<그림 5b>³⁹⁾에서 마르둑 신은 혼돈에 대해 싸운 영웅으로 묘사되어 혼돈의 대명사인 티아마트(용)을 공격하고 무찌르기 위해서 날개가 달렸고 칼과 낫을 지니고 겹 삼지창 두 개로 티아마트를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의상에서도 아시리아 복식을 볼 수 있다. 기본 형식은 튜닉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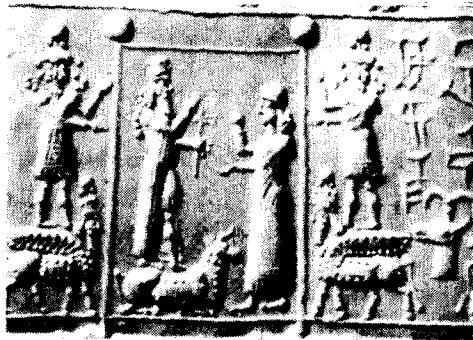
서 튜닉은 소매가 짧고 몸통부분이 통형으로 어느 정도 몸에 꼭 맞으며 가장자리에는 정교하게 긴 술장식이 되어 있어 높은 지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튜닉의 길이는 짧아 무릎까지 닿았고, 튜닉 위에 긴 칼을 찌를 수 있도록 발드리를 착용하였으며, 높은 권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넓은 거들이 달려 있는 층이 지는 에이프런을 튜닉 위에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머리에는 물소 뿔이 장식된 둥글고 높은 관모를 착용하고, 그 밑으로 긴 머리가 어깨까지 닿아 있으며 무성하게 곱슬거리는 수염은 각이 지게 잘 정돈된 모습이다. 또한 <그림 5a>와는 달리 귀걸이, 큰 팔목찌와 팔찌, 목걸이를 착용하여 장중하고 근욕적이며 남성적인 모습들과 조화를 이루며 발을 보호하기 위해 뒷굽이 달린 샌들을 착용하는 등 장신구와 신발을 착용하였다. 여기에서 <그림 5a>와 <그림 5b>를 보면 동시대의 복식이라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아시리아 시대 복식이 외양보다는 기능적인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서 크게 예복과 군복, 사냥복의 세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뉘어졌는데⁴⁰⁾, <그림 5a>의 마르둑 신의 의복은 예복으로 생각이 되며, <그림 5b>는 사냥복으로 착용된 것 같다.

한편 <그림 5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과 인간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마르둑 신이 신의 속성을 의미하는 날개를 달고 있다는 점으로 신들의 모습이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더라도 신의 날개를 보여 줌으로써 결코 인간들이 다가갈 수 없는 신성하고 고귀한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b> 티아마트를 공격하는 마르둑 神 아슈르-나시리팔2세(Ashur-nasirpal II) 궁전벽화 -세계신화사전(아서 코트렐) P.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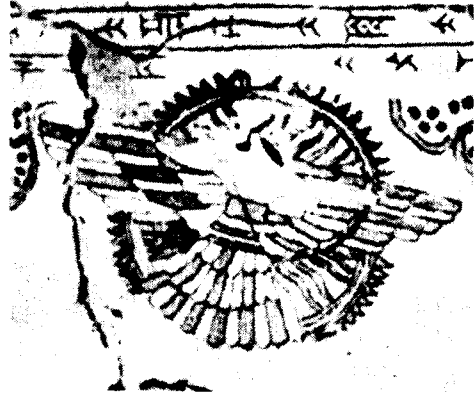
<그림 6>은 자신의 신성한 황소 위에서 있는 천둥 신 아다드(Adad)를 나타내는 옥수인장의 날인으로서⁴¹⁾ 아다드 신은 폭풍우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져다주는 비도 통제 할 수 있었다. 아다드 신의 의복은 전형적인 아시리아 복식의 형태로서 튜닉 위에 거들을 두르고 있으며, <그림 4b>, <그림 5b>와 같이 발드릭과 긴 에이프룬을 착용하여 높은 신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림 4b>의 난우르타 신의 의복과 비교하여 발드릭의 술의 방향과 표현 상에 있어서 머리 끝 부분을 둥글게 표현을 한 점이 구별이 된다. 특히 긴 에이프룬에 표현된 티어드는 같이 음각된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구데아(Goudea) 시대를 전후해서 일반인에게는 사용되지 않고, 신상을 제작할 때 신의 의상으로서만 존재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⁴²⁾ 이는 티어드 코스튬이 신의 상징물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머리에는 물소 뿔이 장식되어 있고 꼭대기가 평평한 원통형관을 쓰고 관 밑으로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렸으며 정리된 턱수염과 콧수염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장신구는 팔찌를 착용하였으나 신발은 신지 않았다. 그리고 손에는 상징물인 도끼를 들고 있다.



<그림 6> 천둥의 신 아다드(좌로부터 두 번째)
-메소포타미아 신화(첸리엔타 맥컬) P.55-

<그림 7>은 수메르의 엘릴, 바빌로니아의 마르둑과 같은 최고 위치의 신으로서 아시리아 태양신인 아슈르(Ashur) 신이다. 그는 아시리아의 다른 신들과 달리 상의를 입지 않고 하의로 티어드 된 카우나케스를 입었으며 허리에는 넓은 거들을 두르고 머리에 둥근 관모를 썼다. 얼굴에는 콧수염과 턱수염의 모습이 보이며, 호전적인 아시리아 신으로서 두

날개를 펴고 활을 잡아당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날개는 카우나케스와 일체를 이루어 마치 새가 날아가는 것 같은 모습이다.



<그림 7> 아시리아 태양 신 아슈르
-비주얼 大世界의 歴史 1권 인류의 탄생·고대 오리엔트 P. 243-

2) 여자 신(女子神)의 복식

수메르 신의 계보에서 보면 최초의 하늘 신 안(An)이 땅 신 키(Ki)를 아내로 삼아서 많은 신들은 낳게 된다.

<그림 8>은 수메르 시대의 텔 아스마르에서 발견된 모신(母神)상으로서, 그녀는 수메르의 모신인 난후르사가 여신으로 추측되며 의복은 술을 착용하고 있다. 술은 한쪽 끝이 왼쪽 어깨 뒤로 드리워지고 천의 가운데 부분이 가슴을 가로질러 오른쪽 팔



<그림 8> 수메르 母神像, Tel Asmar, 바그다드, 이라크
박물관-복식의 역사(블랑쉬 페인) P.50-

밑을 지나고 등을 지나 왼쪽 팔을 덮지만 오른쪽 팔을 드러내도록 착용하였는데 일반인의 의상과 다를바 없다. 다만 길이가 발목까지 닿도록 길다. 머리에는 관모나 머리장식은 하지 않았으나, 짧은 머리는 가리마를 중심으로 단정히 빗어 내렸다. 맨발이며 장신구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신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굉장히 큰 눈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⁴³⁾, 아마도 신들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의미에서 눈을 크게 표현⁴⁴⁾한 것 같다.

<그림 9>는 수메르 여신인 이난나 여신으로 전쟁과 사랑, 풍요의 여신으로서 아프로디테로 불리기도 한다. 이난나 여신의 의복은 <그림 4a>처럼, 실루엣으로 보아서는 층층이 술이 늘어진 카우나케스를 입고 상의에는 술을 둘러 가슴을 가리운 것 같다. 그리고 대퇴부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옆을 박지 않고 둘러 입은 것으로 보인다. 머리에는 신의 속성을 의미하는 불소 뿔을 장식하여 착용하였으며, 장신구는 보이지 않고 맨발이다. 초기 수메르 시대의 남자신의 복식과 차이가 없다. 이난나 여신의 신의 속성을 확연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그림 5b>와 같이 날개가 달려 있고, 한 손에는 성수(聖獸)인 사자를 끌고 있다. 보통 이집트에서는 신들이 때때로 수신(獸神)의 형태로 묘사되는 것과는 달리 메소포타미아 신들은 가끔 성수를 동반하기도 하지만 항상 주요 신은 인간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전쟁의 여신답게 이난나 여신의 어깨와 손에서는 창 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처럼 <그림 4a>와 <그림 9>에서 상징물과 날개는 물론 같은 의상을 착용한 것으로 보아 비슷한 시대에서는 신들의 상징적인 모습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림 9> 수메르 女神 이난나(右)
-세계신화사전(아서 코트렐) P.67-

좌측의 사람은 숭배자로 보이는데, 술이 길게 달린 홀라-스커트 형태의 스커트를 입고 있다.

바빌로니아 여신 중에는 수메르의 사랑과 풍요의 여신인 이난나 여신에서 유래된 이슈타르(Ishtar) 여신이 있다. 이슈타르는 바빌로니아의 전쟁의 여신이지만 아시리아에서 특별히 존경받았다. <그림 10>은 아시리아 시대에서 반역자나 적들에게 가장 잔혹하기로 유명한 아슈르-나시리팔 2세와 이슈타르 여신이다. 이 그림은 이슈타르 여신이 왕을 선택하는 자리에 참석 한 것으로서, 왕과 이슈타르 여신의 복식은 B.C. 9C 이후 가장 일반적인 모습으로 묘사된 것이며⁴⁵⁾, 아시리아 시대의 신과 왕의 복식을 동시에 살펴 볼 수 있다. 이슈타르 여신은 그녀의 호전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남자 신처럼 콧수염과 턱수염을 기르고, 튜닉과 술, 발드릭을 착용하였다. 튜닉 위에 입은 술은 오른쪽 어깨 위에서 시작하여 등을 지나 왼쪽 어깨를 감싸고 허리에서 발목까지 나선형으로 드레이프지게 걸친 후 오른쪽 첫 번째 자락을 허리띠로 고정시킨 것으로서 유일하게 왕의 복식과 틀린 점이다. 머리에는 관의 정수리에 창 끝 모양의 돌기물이 붙어있는 터키 모자 모양의 펠트 모자를 쓰고 컬이 진 긴 머리를 어깨위로 늘어뜨렸으며, 여신인 이슈타르가 남신인 아슈르의 복장을 좇아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미루어보아 아시리아 시대에는 부권이 강화되어 있는 사회로서 여성의 힘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장신구는 귀걸이, 팔찌, 팔목찌, 목걸



<그림 10> 아슈르-나시리팔2세와 이슈타르 女神(右)-세계신화사전(아서 코트렐) P.70-

이를 착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무거운 팔찌는 아시리아 장신구의 특징인데 아주 정교하게 장식된 둥근 팔찌를 하고 있다. 신발은 뒷굽이 달린 샌들을 신고 있고 손에는 술이 달린 지팡이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왕의 복식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아시리아 시대의 신과 왕은 같은 복식을 착용하고 있으나, 단지 술을 두르는 방법에서만 차이를 둔 것을 알 수 있고, <그림 5a>에서 보이는 아시리아 시대의 마르둑 신의 복식과도 비교를 하면 기본 복식은 같으나 원통형 관모가 부드러운 펠트 관모로만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슈타르 여신은 여러 신들 중에서도 가장 널리 사랑 받았던 신이었음을 증명하듯 유물 그림에서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그림 11>에서는 벌거벗고 있다. 목에는 두꺼운 목걸이를 하고, 목이 긴 부츠를 착용하고 있다. 머리는 긴 머리를 묶어 올려 곤봉형으로 정리하여 망이나 주름잡은 천으로 싼 듯한 모습이다. 이렇게 벌거벗은 여신은 이슈타르 여신만이 아니다.



<그림 11> 벌거벗은 이슈타르 女神(右)-메소포타미아 신화(헨리엔타 맥컬) P.88-

<그림 12>의 저승의 여주(女主)인 에레슈키갈(Ereshkigal) 여신 역시 벌거벗은 채 새의 발을 하고 커다란 날개를 달고 있다. 이처럼 나체의 여신상이 보이는 것은,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종교적인 축제 시에 여자들의 나체가 악령을 놀라게 하여 쫓아낸다는 믿음 때문에 옷의 앞을 터서 나부(裸膚)가 보이도록 입었는데⁴⁶⁾, 메소포타미아 사회에서도 여

신의 나체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은 것이 아닌가한다. 또한 고대 이집트에서는 신의 두상을 동물로 표현하기도 하나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두상은 인간의 형상이지만 신체 부분은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신이 에레슈키갈이다. 그리고 그녀는 벌거벗고 있지만 양손에 팔찌를 하고 머리에는 물소 뿔 관을 쓴 것 같다.



<그림 12> 벌거벗은 저승의 女主 에레슈키갈 女神-메소포타미아 신화(헨리엔타 맥컬) P.153-

이와 같이 메소포타미아 남신(男神)에 해당하는 아부, 엔키, 샤마시, 네르갈, 닌후르타, 마르둑, 아다드, 아슈르와 여신(女神)에 해당하는 닌후르사가, 이난나, 이슈타르, 에레슈키갈 등의 복식을 살펴 본 결과 남녀 신의 복식은 큰 차이가 없으며, 신들의 얼굴 모습은 지극히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큰 눈이나 물소 뿔로서 신권을 나타내거나 인간과 뚜렷히 구별되는 날개를 지니고, 때로는 신체의 일부분이 동물의 모습을 하여 신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책임 영역을 나타내는 상징물은 손에 들려 있거나 신체 주변에 표현되어 상징적 의미 전달을 용이하게 해주고 있으며 그들이 착용한 복식은 그 당시의 복식을 반영하고 있다.

위의 남녀 신의 복식을 정리하면 <표 1>·<표 2>와 같다.

<표 1> 주요 남신(男神)들의 복식

구분 이름 (별칭)	책임 영역	다른 神과의 관계	특징 및 상징물	의복	관모	수염	신발	장신구
Abu: 그림1	다산의 神		성소-아스마르 상징-큰 눈	랩 어라운드 스커트	✓	○	×	×
Enki (Ea): 그림4a	물의 神, 잔잔한 파도와 지혜의 神, 창조의 神, 대지의 神, 암수(Apsu)의 지배자, 인류의 창조자이며 수호자	안(아누)의 아들, 아내는: 담키나(Damkina), 마르둑의 아버지, 두무지(탐부즈)의 아버지	성소-에리두시, 상징물-물고기, 지하수, 연못, 파도	티어드 된 카우나케스와 숄	○ (물소 뿔)	○	×	×
Shamash (Utu): 그림2a,2b	태양의 神, 하늘과 땅의 심판관 함부라비 법전을 준 神	난나(신)의 아들	성소-시파르, 라르사, 우르크 상징물-태양 빛, 톱, 지팡이	랩 어라운드 스커트	○ (물소 뿔)	○	×	×
				티어드 된 숄	○ (터번)	○	×	○ (목걸이, 팔찌)
Nergal: 그림3	지하 세계의 주인, 전염병의 神, 전쟁의 神, 사막의 神	엘릴의 아들, 에레슈키갈의 남편	성소-루타, 상징물-사자머리 한 양날 절쇠	랩 어라운드 스커트	○ (물소 뿔)	○	×	○ (팔찌)
Ninurta: 그림4a,4b	전쟁의 神, 추적의 神, 봄의 홍수·너우의 神, 사냥의 보호자, 쟁기의 주인	엘릴의 아들	성소-기르수, 라가시 상징물-활, 화살, 갈	랩 어라운드 스커트	○ (물소 뿔)	○	×	×
				튜닉, 에이프린, 발드리	○ (원통형)	○	×	×
Marduk: 그림5a,5b	바빌로니아의 최고 神, 주술과 주문의 神, 수메르 최고 神 엘릴(대기 神)과 동일시	에아(엔키)의 상남, 사르파니투(Sarpani- tu)의 배우자, 나무의 아버지	성소-바빌론 상징물-막대, 칼, 낚, 검삼지창, 날개	튜닉, 숄 발드리	○ (원통형)	○	·	○ (반지)
				튜닉, 에이프린, 발드리	○ (물소 뿔)	○	○ (센들)	○ (키걸이, 팔찌, 팔목찌, 목걸이)
Adad: 그림6	폭풍과 비의 神, 천둥 神	안(아누)의 아들	성소-황소 상징물-갈라진 모양의 번개, 도끼	튜닉, 에이프린, 발드리	○ (원통형)	○	×	○ (팔찌)
Ashur: 그림7	아시리아 최고 神, 전쟁 神		성소-아슈르 상징물-활, 화살, 날개	티어드 된 카 우나케스	○ (둥근형)	○	×	×

(○: 착용, /: 미 착용)

<표 2> 주요 여신(女神)들의 복식

구분 이름	책임 영역	다른 신과의 관계	특징 및 상징물	의복	관모	수염	신발	장신구
Ninhursag a: 그림8	수메르의 1神, 생산성의 神 (야생동물, 구릉지대의 생 물 탄생 주기), 왕권의 神, 대지의 1神	안의 딸, 엘림의 손윗누이	성소-키쉬	술	×	×	×	×
Inanna: 그림4a,9	전쟁의 女神, 풍요와 사랑의 女神, 하늘과 별들의 여왕	두부지의 아내, 난나의 딸	성소-우르크, 키쉬, 아가테, 아르마일 상징물 사자, 장, 날개	티어트 된 카우나케스 와 술	(불소 뿔)	×	×	×
Ishtar: 그림10,11	이난나에서 유래, 전쟁의 女神, 사랑과 풍작의 女神, 생식의 女神	탐부즈의 아내	성소-우르크, 키쉬, 아가테, 아르마일 상징물 사자, 장, 칼, 날개	튜니, 술, 발도리 번거벗음	(렐트)	○	(샌들)	(귀걸이, 팔찌, 팔목찌, 목걸이)
Ereshkigal: 그림12	죽음의 女神, 불모의 女神	내르갈의 아내, 이슈타르 동생	상징물 새의 발, 날개	번거벗음	(터번)	×	×	(팔찌)

(○ : 착용, × : 미 착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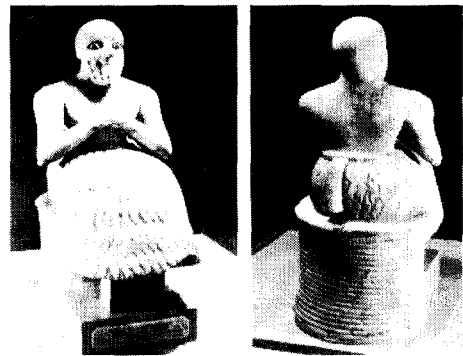
2. 성직자의 복식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메소포타미아의 초기 시대에는 제정 일치 시대로 통치자가 성직자의 역할을 겸하였으나 차츰 전문적인 성직자가 출현하여 세습화되었다. 이들 성직자들의 복식은 일반인의 복식과 커다란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성직자들은 주로 일반인과는 달리 가발이나 머리를 길게 기르지 않고 뾰뚱 깎은 머리를 하였는데 이는 성직자들을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서 부정한 채로 있었던 사람을 정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⁴⁷⁾

성직자의 의복 특징은 술을 튜너위로 나선으로 감아 올렸으며 에이프런을 하고 술로 여밈을 하기도 하여⁴⁸⁾ 권위와 높은 신분임을 나타내었고, 색조는 화려한 색을 염색해서 쓰는 일반인과는 달리 표백을 해서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발견된 입체 조상 중 가장 뛰어난 마리(Mari)에 있는 이슈타르신전의 감독관인 에비일(Ebih-il) 좌상<그림 13>은 상의는 입지 않고, 다발로 된 술이 여러 줄을 이루는 카우나케스를 발목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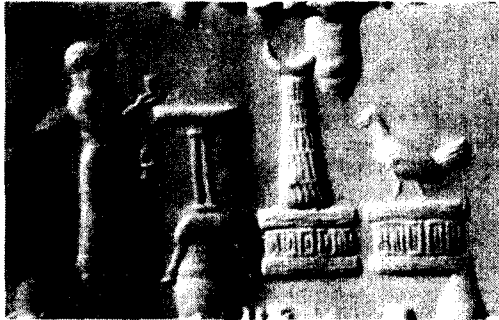
지 내려오도록 허리에 둘러 묶어 입었으며, 등뒤로는 허리끈을 묶고 남은 여분의 천이 <그림 1>과 같이 동물의 꼬리처럼 길게 늘어져 있다. 머리는 깨끗이 밀었으나 수염은 길게 길러 단정하게 정리하였으며,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고 맨발이다.



<그림 13> Ishtar 신전의 감독, Mari, 파리 루브르 박물관-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Carl Kohler), P.35-

<그림 14>는 여러 신들의 상징 앞에 서있는 성직자를 나타내는 청색 옥수 인장의 날인으로 성직자

는 길이가 발목까지 내려오는 램 어라운드 스커트 단에 술 장식을 하여 착용하였다. 머리는 역시 밀었으며, 장신구도 없고 맨발이다. 그러나 턱수염이 없다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앞의 <그림 13> 성직자보다는 연대가 늦은, 턱수염을 모두 밀어 버리는 수메르 후기에 해당되는 것 같다.



<그림 14> 여러 神들의 상징앞에서 있는 성직자
-메소포타미아 신화(헨리엔타 맥켈), P.58-

따라서 성직자의 복식은 일반인의 복식과 크게 다를 바 없이 그 시대의 복식을 그대로 따른 것을 알 수가 있다. 단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가장 특이한 긴 머리를 따르지 않고 종교적 행위의 정결함을 위하여 머리털을 모두 밀었다는 것과 에이프런을 허리에 둘렀으며, 풍성하고 긴 술 장식을 함으로써 성직자의 권위와 높은 지위를 나타내어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였다.

IV. 고대 메소포타미아 일반복식과 종교복식의 비교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화는 잦은 외부 침공으로 인해 이질적인 요소가 혼합 절충된 성격을 갖음으로써 복식 문화 또한 투쟁적인 역사 양상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고대 메소포타미아인의 복식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창시자인 수메르인의 복식을 기본 복식으로 하여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로 이어지면서 존속되어진다. 수메르인의 기본 복식은 램 어라운드 스커트와 술, 모피가 여러 층으로 늘어져 있는 직물의 복식 형태인 카우나케스이며,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시대에는 수메르의 기본 복식 외

에 튜닉과 술, 그리고 여기에 장식과 신분의 상징으로 발드릭, 거들 등을 착용하였다. 바빌로니아에서는 남녀 복식의 형태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남자의 복식과는 달리 여자의 복식에서는 가슴을 드러내는 의복 형태가 보이지 않으며, 아시리아시대에는 이르러서는 법으로써 결혼한 여자에게 베일을 쓰게 하는 등 정숙한 의복착용이 행해졌다.

한편 수메르의 종교 복식은 당시의 일반 복식과 큰 차이가 없다. 남녀 신들은 램 어라운드 스커트, 술, 카우나케스 등을 일반인과 똑같이 착용하고 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에서는 일반인들이 다양한 종류의 의복을 착용한 반면 남자 신들이 카우나케스를 착용하고 있으며, 아시리아에서는 남자 신들이 카우나케스, 술 달린 튜닉, 술, 발드릭, 거들 등과 함께 에이프런을 착용하였다. 즉 수메르인의 특징적인 복식인 카우나케스는 후기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신들만이 착용하게 되었으며, 아시리아 신들이 착용한 에이프런 또한 신들만이 착용할 수 있는 신의 복식으로 존재한다. 또한 바빌로니아의 여신들의 복식에 대해서는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본 장에서 논의를 할 수 없으나, 아시리아의 시대에는 얼굴조차 드러내지 않던 여인의 일반 복식과는 달리 여신이 주술적 목적은 물론 자손의 번성과 다산, 풍년을 기원하는 뜻에서 나체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신들의 머리 형태는 일반인들과 다를 바 없이 곱슬거리는 긴 머리를 어깨위로 늘어뜨리고 수염을 길렀으나, 물소 뿔이 장식된 관이나 원통형 관을 착용하여 신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신들은 초기 수메르 시대에 일반인들과는 달리 거의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고 단지 상징물을 들고 있으나,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로 접어들면서 커다란 팔찌, 팔목찌, 귀걸이, 목걸이 등을 착용하여 장중하고 우람한 남성미를 강조하였다.

수메르, 바빌로니아 인은 남녀 모두 맨발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전투적인 아시리아 인은 뒷굽이 달린 샌들, 목이 긴 부츠를 착용하였다. 신들 또한 초기에는 거의 맨발의 모습이나 아시리아로 접어들면서 남녀 모두 발달된 형태의 신을 신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일반 복식과 종교 복식의 비교

구분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복식	종교 복식	
대표적인 복	남자	수메르	랩 어라운드 스커트, 숄, 카우나케스	랩 어라운드 스커트, 숄, 카우나케스
		바빌로니아	랩 어라운드 스커트, 튜닉, 카우나케스, 숄	티어드 된 숄(카우나케스)
		아시리아	랩 어라운드 스커트, 튜닉, 숄, 발드릭, 거들	튜닉, 숄, 발드릭, 에이프런, 카우나케스
	여자	수메르	숄, 카우나케스	숄, 카우나케스
		바빌로니아	튜닉, 숄, 카우나케스	
		아시리아	튜닉, 숄, 베일	튜닉, 숄, 발드릭
머리 형태	남자	수메르	턱수염, 곱이 진 긴 머리, 머리 꼭대기에서 뭉거나 머리띠로 묶고 남은 머리는 어깨위로 늘어뜨림, 대머리, 가발	턱수염, 콧수염, 곱이 진 긴 머리, 가리마를 타서 어깨위로 늘어뜨림, 물소 뿔 관 착용
		바빌로니아	턱수염, 곱이 진 긴 머리, 왕의 머리는 금사로 장식하여 망으로 썼음, 왕은 낮고 둥근 왕관 터번 착용	턱수염, 물소 뿔 장식이 된 터번 착용
		아시리아	턱수염, 콧수염, 곱이 진 긴 머리, 왕은 흰색 켈트 3중관과 원통형관 착용	턱수염, 콧수염, 곱이 진 긴 머리, 물소 뿔 장식이 된 둥근 관, 원통형관 착용
	여자	수메르	머리를 길게 묶어 곤봉형으로 정리하여 망, 주름잡은 천으로 씌, 가발, 터번, 리본, 투프 및 장미꽃 등으로 장식	짧은 머리를 가리마를 중심으로 빗어 내림, 물소 뿔 관 착용
		바빌로니아	곱이 진 머리는 어깨에서 모아줌, 장식 밴드, 머리수건 착용	
		아시리아	곱이 진 머리는 어깨에 늘어뜨리거나 쪽을 진, 머리띠, 켈트 3중 관 착용	곱이 진 머리는 어깨에 늘어뜨리고 켈트 3중 관 착용, 머리틀곤봉형으로 묶어 올림
장신구 및 상징물	남자	수메르	거의 사용하지 않음	장신구 착용하지 않음
		바빌로니아	목걸이, 팔찌	팔찌, 목걸이
		아시리아	귀걸이, 팔찌, 큰 팔목찌, 목걸이	귀걸이, 팔찌, 큰 팔목찌, 목걸이
	여자	수메르	석고구슬, 수정, 유리, 청금석, 홍옥수, 금, 켈던트, 목걸이, 귀걸이, 핀	장신구 착용하지 않음
		바빌로니아	구슬 목걸이, 팔찌	
		아시리아	목걸이, 귀걸이, 팔찌	귀걸이, 팔찌, 팔목찌, 목걸이
신발	남자	수메르	맨발	맨발
		바빌로니아	맨발	맨발
		아시리아	샌들, 부츠, 가죽 구두	샌들, 부츠
	여자	수메르	맨발	맨발
		바빌로니아	맨발	
		아시리아	맨발, 가죽 구두	샌들, 부츠

V. 결 론

고대 메소포타미아는 지리적으로 개방적이어서 거듭되는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하여 잦은 문화적 격변기를 겪어야만 하였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은 종교관에 반영되어 내세를 위한 것보다는 현세를 위한 종교 행위를 행하였으며, 특히 현재 삶의 안위를 위하여 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신을 섬겼다. 그러나 신들은

인간화되어 이집트 신들이 대다수 동물 형상의 얼굴을 지니고 있는 반면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신들이 착용한 복식은 그 시대에 융성한 도시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착용되어진 복식과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역사의 진행과 더불어 종교 복식은 차츰 화려해지고 다양해졌으며 일반 복식과 다른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1.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들이 착용한 복식은 크게

5가지의 착장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첫 번째로 상의는 벗고 스커트 가장자리에 긴 술이 달린 랩 어라운드 스커트를 착용한 모습, 두 번째로 허리 아래로 긴 술 다발이 늘어진 홀라-스커트형의 랩 어라운드 스커트만을 착용한 모습, 세 번째로 하의로 티어드 형태의 스커트인 카우나케스를 착용하고 상의로 술을 두르는 형태, 네 번째로 한 장의 술로서 몸을 감싼 형태, 다섯 번째로 튜닉 위에 거들, 에이프런, 발드릭과 술을 착용한 모습이다. 특히 티어드 커스툼은 후기로 갈수록 신만이 착용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의복들은 일반인들과 달리 스커트 길이가 길고 술을 길게 하여 호화로움과 높은 신분 상징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착장 형태는 신에 따라 고정화되기보다는 시대에 따라 변화된 것 같다. 즉 각기 신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들의 착장 의상도 달라졌으며 후대로 갈수록 복잡한 착장 형태를 보이고 있다.

2. 신들의 머리에는 초기 아부 신과 모신을 제외하고 모두 신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관모를 착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수염을 길러 늘어뜨렸다. 관모는 후대로 갈수록 점차 다양한 형태가 착용되었으며, 신의 상징물이 된 것 같다.

3. 신들의 신발을 살펴보면, 수메르, 바빌로니아 신들의 모습에서는 신발을 찾아볼 수 없었으나, 호전적인 아시리아 신들은 남녀 모두 발달된 형태의 신발을 신고 있었다.

4. 슈메르 시대의 신들은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나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로 이어지면서 다양한 장신구를 착용하였다. 특히 아시리아 시대에는 장신구로서 장중하고 근육적인 남성적인 미를 한껏 강조하였다.

5. 신들은 각기 책임 영역과 관계된 상징물로서 그들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의 특징인 날개를 지녀 인간과 구별되기도 했다.

6. 성직자는 더러움을 정화하는 의미에서 머리를 빡빡 깎았으며, 티어드형 카우나케스 혹은 랩 어라운드 스커트를 입고 신발은 신지 않았다. 그러나 수염은 길고 짧은 모습이 공존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수염에 대한 강제적 조항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과 성직자의 복식은 대부분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착용했던 당시

의 복식을 반영하면서 종교적인 상징물이나 복식의 장식물로서 변화를 주어 그들의 역할과 권위를 나타내는 신의 복식으로서 고정되었으며 상징성을 지니게 된 것 같다.

참고문헌 및 미주

- 권우현 · 조우현, "인도 종교 복식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의류학회지 21권 4호, 1997.
- 김광경 · 조정미 · 남미우, 카톨릭 사제복식에 대한 인상 형성 연구, 의류학회지 23권 5호, 1999.
- 김인숙, 西洋 古代社會의 髮型과 頭飾에 관한 考察, 복식 3호, 1980.
- 김은미, 고대 그리스 신들의 복식 연구, 원광대 석사 학위 논문, 1999.
- 丹野郁 · 原田二郎, 이회현(역), 서양 복식사, 경춘사, 1982.
- 박찬부, 구약 성서에 나타난 히브리인의 복식, 복식 10호.
- 백영자 · 유효순, 서양 복식 문화, 경춘사, 1998.
- 비주열, 대세계의 역사 - 인류의 탄생 · 고대 오리엔트-, 삼성 출판사, 1987.
- 絲賀昌昭, 메소포타미아의 土, 經濟 研究所, 1967.
- 새뮤얼 노아 · 크레이머, (라이프) 人間世界史, 한국일보 타임-라이프, 1988.
- 서진통상, (Time Life의) 세계 10대 문명 대탐사, 한국방송 기자클럽, 1995.
- 세계미술대전집, From Ancient Art To Medieval Art, 동아 출판사, 1982.
- 신상옥, 서양복식사, 수학사, 1988.
- 유송옥 · 이은영 · 황선진, 복식문화, 교문사, 1996.
- 유송옥, 古代 東西洋 上衣 比較研究, 복식 3호, 1980.
- 이순홍의 4인, 그림으로 보는 서양 복식사, 경춘사, 1992.
- 이자연, 서울 지방의 무속복식에 관한 연구, 복식 30호, 1996.
- 임상임 · 김경희, 이집트 무용 의상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 학회지 제 8권 1호, 1999.
- 임상임 · 김현경, 종교 복식의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I), 복식 39호, 1998.
- 불량쉬 페인, 복식의 역사, 까치가정화 2, 1988.
- 정진국, 인류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를 찾아서-, 해안, 1999.
-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1997.
- 조철수, 메소포타미아와 히브리 신화, 길, 2000.
- 조철수, 수메르 신화 I, 서해 문집, 1996.
- 増田精一, 世界の 大遺物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 주식회사 講談社, 1988.
- 황선진, 나일강과 티그리스 · 유프라테스강의 복식 문화 비교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 논문, 1981.

- 차하순, 서양사총론, 탐구당, 1990.
- Ather Cotterell, A Dictionary of World Myt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Haper and Row Publishers, New York., 1965.
- CARL KOHLER, A History of Costume, Dover Publications, Inc, N.Y, 1963.
- Edward Mcnall Burns 외 2인, Western Civilizations, 박상익(역), 서양 문명의 역사, 소나무 출판사, 1994.
- FRANCOIS BOUCHER,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Thames and Hudson, 1966.
- Henrietta McCall, Mesopotamia Myths, 임웅(역), 메소포타미아 신화, 범우사, 1999.
- J. Anderson Black · Madge Barland, A History of Fashion, 윤길순 (역), 세계패션사 I, 자작아카데미, 1997.
- Jean Bottero · Marie-Joseph Steve, etait une fois mesopotamie, 최경란(역), 메소포타미아 -사라진 설형문자의 비밀-, 시공사, 1988.
- John B. Noss, 윤이홍(역), 세계종교사 上, 현음사, 1986.
- Robert E. Lerner, Western Civilizations, W · W · Norton & Company, Inc, 1987.
- R. Turner Wilcox, The Mode in Costume, Charles Scribner's Sons., New York, 1967.
- 1) 이자연, 서울 지방의 무속복식에 관한 연구, 복식 30호, 1996, p.117
- 2) 김광경, 조정미, 남미우, 카톨릭 사제복식에 대한 인식 형성 연구, 한국 의류 학회지, 23권 3호, 1999, p.703
- 3) Ibid., p.704
- 4) 권영실, 조우현, 인도 종교복식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권 4호, 1997, p.678
- 5) 비주얼 「대세계의 역사-인류의 탄생 · 고대 오리엔트」 삼성출판사, 1987, p.204
- 6) 정홍숙, 서양 복식 문화사, 교문사, 1997, p.28
- 7) Edward Mcnall Burns 외 2인, Western Civilizations, 박상익(역), 서양 문명의 역사, 소나무 출판사, 1994, p.53
- 8) John B. Noss, 윤이홍(역), 세계종교사 上, 현음사, 1986, p.82
- 9) 비주얼 「대세계의 역사-인류의 탄생 · 고대 오리엔트」 삼성출판사, 1987, p.223
- 10) Ibid., p.224
- 11) 지구라트(Ziggurat)- 수메르, 바빌로니아, 아시리아의 단구상(段丘狀)으로 쌓은 탑 모양 의 신전
- 12) 정홍숙, op. cit., p.29
- 13) Edward Mcnall Burns 외 2인, 박상익(역), op. cit., p.57
- 14) 비주얼 「대세계의 역사-인류의 탄생 · 고대 오리엔트」 삼성출판사, 1987, p.224
- 15) 일곱 큰 신: 안(하늘신), 엘릴(바람신), 엔키(지하수신), 난나(달의신), 우투(태양신), 이난나(금성, 풍요의 여신), 아다드(천둥신)
- 16) Henrietta McCall, Mesopotamia Myths, 임웅(역), 메소포타미아 신화, 범우사, 1999, p.59
- 17) 비주얼 「대세계의 역사-인류의 탄생 · 고대 오리엔트」 삼성출판사, 1987, P.350
- 18) Edward Mcnall Burns 외 2인, 박상익(역), op. cit., p.70
- 19) Ibid., p.57
- 20) Henrietta McCall, 임웅(역), op. cit., p.57
- 21) John B. Noss, 윤이홍(역), op. cit., p.95
- 22) 황선진, 나일강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지역의 복식문화 비교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p.24
- 23) 김인숙, 서양 고대 사회의 발형과 수식에 관한 고찰, 복식 3호, 1980, p.100
- 24) Ibid., p.98
- 25) 백영자 · 유효순, 서양의 복식 문화, 경춘사, 1998, p.59
- 26)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이종남의 3인(역), 복식의 역사, 까치, 1988, p.49
- 27) 황선진, op. cit., p.62
- 28) J. Anderson Black · Madge Barland, 윤길순(역), op. cit., p.23
- 29) Blanche Payne, 이종남의 3인(역), op. cit., p.51
- 30) 김인숙, op. cit., p.99
- 31) Blanche Payne, 이종남의 3인(역), op. cit., p.49
- 32) Henrietta McCall, 임웅(역), op. cit., p.54
- 33) 조철수, 메소포타미아와 히브리 신화, 길, 2000, p.175
- 34) J. Anderson Black · Madge Barland, 윤길순(역), op. cit., p.27
- 35) Blanche Payne, 이종남의 3인, op. cit., p.57
- 36) 김인숙, op. cit., p.100
- 37) CARL KOHLER, A History of Costume, Dover Publications, Inc, N.Y, 1963, p.74-75
- 38) Ibid., p.71
- 39) John B. Noss, 윤이홍(역), op. cit., p.89
- 40) J. Anderson Black · Madge Barland, 윤길순(역), op. cit., p.34
- 41) Henrietta McCall, 임웅(역), op. cit, p.55
- 42) 丹野郁 · 原田二郎, 이희현(역), 서양 복식사, 경춘사, 1982, p.25
- 43) Blanche Payne, 이종남의 3인(역), op. cit., p.49
- 44) 새뮤얼 노아 · 크레이머, (라이프)人間世界史, 메소포타미아, 한국일보 타임-라이프, 1988, p.105
- 45) J. Anderson Black · Madge Barland, 윤길순(역), op. cit., p.34
- 46) 임상임 · 김경희, 이집트 무용 의상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제8권 1호, 1999, p.143
- 47) 박찬부, 구약 성서에 나타난 히브리인의 복식, 복식10호, p.67
- 48) 백영자 · 유효순, op. cit., p.47